

일반학생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체험과 통합캠프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요구

정대영*

창원대학교

송미진

경상남도특수교육원

이상로

창원천광학교

《요약》

본 연구는 일반학생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체험과 통합캠프 프로그램 내용 구성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요구를 알아보았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사연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대상은 경상남도 특수학교(급) 및 일반학교 통합학급 교사와 부모 중 계통표집 및 임의표집법으로 1,640명이 표집되었다. 조사방법은 인터넷설문응답시스템을 이용하였으며, 응답자 1,225명을 대상으로 일반학생의 장애체험과 통합캠프의 참가 대상, 실시 시기, 실시 기간, 내용에 대한 요구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장애체험 프로그램의 참가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5~6학년 학생을, 중·고등학교는 1학년 학생을 각각 우선순위로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시 시기는 '학기 중'과 '여름방학'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시 기간은 '일일 체험형'과 '1박 2일 숙박형'이 가장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체험활동의 내용은 초·중·고 교사 모두 공통적으로 모의 장애체험을 중요 내용으로 인식하였으나 초등학교 특수교사는 '장애인스포츠체험'을, 중·고등학교 특수교사는 '직업재활프로그램체험'을 중요한 내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통합캠프 참가대상으로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우선순위로 요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시 시기는 '학기 중'과 '여름방학'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시 기간은 '일일 체험형'과 '1박 2일 숙박형'이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캠프 내용은 초·중·고등학교 모두 '자기(인성)계발활동'을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일반학생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체험과 통합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논의하였다.

주제어 : 장애인식, 장애체험, 통합캠프

* 제1저자(yeman@hanmail.net)

1.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특수교육은 일반교육과 함께 시대적 변화에 따른 요구와 더불어 패러다임과 체제를 바꾸며 교육 수요자들에게 최적의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꾸준히 혁신을 해가고 있다. 여러 가지 시대적 변화의 요소 중 가장 두드러진 것 중의 하나는 특수교육대상자들의 배치 환경의 이동 문제일 것이다. 즉, 2014년 특수교육통계(교육부, 2014)에 의하면 2010년 이후 통합교육 환경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 학생은 전체 특수교육대상자의 70%를 상회하고 있다. 학문적으로는 포용교육(inclusion)이 강조되고 있으며,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이 상호 존중하며 인격적 학습 공동체를 형성하여 대등한 관계 속에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궁극적인 포용 관계에 이르기까지는 다양한 접근과 노력이 요구(정대영, 2011)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교육부와 학교 현장의 교육적 접근은 장애학생과 일반학생의 낮은 차원의 물리적 통합을 넘어 공동의 학습 장면에서 사회기술 발달과 정서적 유대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정서적 통합과 더불어 장애학생과 학습활동에 함께 참여하는 교수적 통합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을 것인지를 고민하게 된다.

교육부는 통합교육을 확대 발전시키고자 장애학생 인권 친화적 분위기 조성을 4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세부과제로 범국민 대상 장애인식을 개선하고자 '교과서의 장애관련 내용 교육 충실', '연 2회 이상 장애이해교육 실시', '장애인식개선 행사 개최', '장애체험활동 등을 통한 장애인식 개선'과 같은 활동을 제시하였다(교육부, 2014). 이는 교육부가 학교 교육과정을 통하여 체험 중심의 장애이해교육을 강조함으로써 보다 적극적인 통합교육 정책을 채택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장애체험활동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식 개선활동은 학교와 지역사회가 창의적인 장애체험활동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단위학교 또는 인근지역 일반학교와 함께 활동을 확대하여 일반학생의 장애인식 개선을 강조하고 있다(교육부, 2014). 학교 현장에서는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대표적인 활동이 장애체험 프로그램과 통합캠프이다. 장애체험 프로그램은 장애에 대한 정보제공, 장애인과의 직접 또는 간접적인 접촉 강화, 모의 장애체험, 집단 토의, 감상문 작성 등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키는데 효과가 있었다(서동명, 1999; Au & Man, 2006; Krahe & Altwasser, 2006; Stuart, 2006). 장애체험 프로그램은 장애인관련기관인 장애인복지관 등에서 일반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나 태도의 변화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중운, 허만세, 2012). 특히 학교는 지역사회의 장애인관련기관과 연계하여

장애체험 초청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현장 방문형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장애와 비장애란 이분법적 장벽을 허물고자 노력하고 있다.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캠프는 일상을 떠나 일정 기간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함께 먹고 자기 등의 기본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춤, 노래, 토론, 탐색, 관계 맺기, 축제 등 삶의 질을 향상할 수 있는 문화적 요소가 녹아 있다(송정희, 2010). 현재 통합캠프는 장애인관련기관이나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실시되고 있으며, 학문적으로 탐색되기도 한다. 초기 통합캠프 관련 연구에서는 장애이해 교육에 대한 편견과 이해 부족으로 일방적 상호작용이 주로 나타났으나, 여러 해 동안 통합 캠프를 실시하는 가운데 일반학생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자각과 반응을 통하여 인식이 바뀔으로써 장애 아동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인정하고 대등한 인격체로서 상호작용하는 관계로 발전되었다(송정희, 2010; 신순자, 박정민, 강삼성, 2010). 아울러 장애인과 일반청소년들이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은 장애인에 대한 선입견이나 부정적 인식을 감소시키고 동시에 일반청소년들에게 장애인들과 친밀감을 형성함으로써 긍정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신순자, 박정민, 강삼성, 2010)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장애체험 프로그램과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캠프가 장애인식 개선에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 실제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일반학생들이 학교교육과정상 또는 일상생활 중에 접근하기 쉬운 지역사회의 청소년수련기관에서는 인적 자원의 부족, 고비용의 시설 설비의 미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능력의 부재 등으로 장애체험 프로그램과 통합캠프를 운영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박영균, 2005; 경상남도교육청, 2012), 장애인관련기관과 특수교육관련기관에서는 전문가의 부족, 장애체험 및 이해 전문 프로그램의 미비 등으로 장애체험과 통합캠프 프로그램이 제한적으로 운영되고(경상남도교육청, 2013)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교사와 부모들은 장애체험과 통합캠프 프로그램에 일반학생의 참여를 꺼리거나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일반학생들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학교급별로 어떤 대상을, 학사일정 중 언제,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어떤 내용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야할지 교사와 부모의 요구를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최근 장애이해교육 관련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 논문(이시영, 2012)에 의하면 대부분의 장애이해교육은 실험연구로 여러 가지 직간접 체험활동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이해하고자 하였고, 단기간의 효과만을 측정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장애이해교육이 일반학생의 장애에 대한 자아개념의 확립과 변화를 도모하는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는 등 그 내용과 영역이 확장되고 있으며(이수연, 박종영, 박정자, 이은숙, 2013),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구조화되고 체계화된 장애인식개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면 사회적 및 교육적으로 더욱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이중운 외, 2012) 있는 가운데 일반청소년과 장애청소년의 통합 수련활동 활성화 프로그램의 내용 및 수준의 다양화가 모색될 필요성이 제기되고(최성규, 2011) 있는 등 장애체험과 통합캠프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장애체험과 통합캠프 프로그램이 일반학생의 장애인식 개선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나아가 확대 시행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장애체험과 통합캠프 프로그램의 참가 대상, 실시 시기, 기간, 내용에 대해 직접적으로 관련성이 높은 선행연구가 부족하므로 학문적으로 연구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보다 구조화되고 체계적인 장애체험 및 통합캠프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효과적인 장애체험과 통합캠프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참가 대상, 시기, 기간 및 활동 내용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요구를 파악하는데 의의가 있다.

2. 연구 문제

본 연구는 일반학생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체험과 통합캠프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요구를 알아보고자 하였으며,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학생의 장애체험 프로그램(대상, 시기, 기간, 내용)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요구는 어떠한가?

둘째, 일반학생의 통합캠프 프로그램(대상, 시기, 기간, 내용)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요구는 어떠한가?

II. 연구 방법

1. 조사 대상

본 연구는 경상남도 특수학교(급)의 특수교사와 특수학생의 부모, 일반학교의 통합학급 교사와 일반학생의 부모를 조사대상으로 하였으며, 특수학교 8개교의 초·중·고 280개 학급과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일반학교 544개교를 모집단으로 하였다(2013 경남특수교육 현황). 표집대상은 특수학교 8개교의 초·중·고 280개 학급 전체 그리고 특수학급이 설치되어 있는 일반학교는 지역별 현황표를 모집단의 표집틀로 하여 초·중·고 270개교를 계통표집($k=2$)으로 설정하였다. 표집 대상으로 설정된 각 학교(급)에서 특수교사와 특수학생의 부모는 학급당 각 1인을 대상으로

550명을 표집하였고, 통합학급 교사와 일반학생의 부모는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 학교 270개교에서 통합학급 한 반을 임의로 선택하여 각 1인을 대상으로 270명을 표집하였다. 집단별 표집 수와 회수율은 <표 1>과 같다.

<표 1> 집단별 표집 수와 회수율

구분	특수교사	특수학생 부모	통합학급 교사	일반학생 부모
표집	550	550	270	270
회수	505	314	232	174
회수율	91.82%	57.09%	85.93%	64.44%

조사대상인 특수교사와 특수학생 부모, 통합학급 교사와 일반학생 부모의 학교 급별 분포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표 2> 조사대상의 학교급별 분포 N(%)

구분	계	특수교사	특수학생 부모	통합학급 교사	일반학생 부모	
소속학교	초	686(56.0)	254(50.2)	163(51.9)	153(66.0)	116(66.6)
	중	317(25.9)	137(27.2)	81(25.8)	56(24.1)	43(24.8)
	고	222(18.1)	114(22.6)	70(22.3)	23(9.9)	15(8.6)
총 합계	1225(100)	505(100)	314(100)	232(100)	174(100)	

2. 조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장애체험과 통합캠프 프로그램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요구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진에서 개발하였다. 설문지는 청소년 수련활동관련 연구(김진호, 2013;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2)와 장애청소년 수련활동관련 연구(박영균, 2005; 최성규, 2011) 및 장애체험 가이드북(국립재활원, 2012)을 참고하여 개발하였다. 장애체험에 대한 내용은 참가 대상, 실시 시기, 실시 기간, 활동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장애체험활동의 내용은 장애체험 매뉴얼(국립재활원, 2012)에서 제시하고 있는 9개 영역 중 휠체어장애체험, 목발장애체험, 상지장애체험 활동을 지체장애체험

으로 통합하였고, 지적장애체험, 시각장애체험, 편의시설 장애체험, 청각·언어장애체험, 장애인스포츠체험, 직업재활프로그램체험을 포함하여 7개영역으로 재구성하였다. 통합캠프에 대한 내용은 참가 대상, 실시 시기, 실시 기간, 활동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통합캠프의 수련활동 내용은 인증수련활동의 분류체계의 변화에 따라 건강·보건활동, 과학정보활동, 교류활동, 모험개척활동, 문화예술활동, 봉사활동, 자기(인성)개발활동, 직업체험활동, 환경보존활동, 기타 등 총 10가지 영역 중 기타를 제외한 9가지 영역을 선택하였다(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2). 이와 같은 구성요소로 예비문항을 구성하고, 특수교육 전공 교수 1인, 특수교육 전문직(장학사) 1인, 특수교육 석사학위 소지한 경력 15년 이상의 특수교사 2인 등의 검토를 걸쳤다.

이상의 과정을 거쳐 구성된 설문지의 내용타당도 검증은 위해 2013년 6월 특수학교(급) 및 통합학급 교사 20인과 특수학생의 부모 및 일반학생의 부모 15인을 대상으로 사전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교사들의 요구사항으로 장애체험활동은 학교단위로 실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참가 대상을 학교급(초·중·고)별 내의 학년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는 의견과 통합캠프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대부분 실시되므로 참가 대상을 학교급을 알아보자는 의견을 반영하여 문항의 내용을 수정 보완하여 구체화하였다. 또한 장애체험과 통합캠프의 내용 문항에 대해서는 우선순위로 세 가지를 선택하도록 다중응답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질문내용의 구성은 <표 3>과 같다.

<표 3> 질문내용의 구성

영역	질문내용	문항수
장애체험	학교급(초·중·고)별 참가 대상	3
	실시 시기	1
	실시 기간	1
	장애체험활동 내용	1
통합캠프	참가 대상	1
	실시 시기	1
	실시 기간	1
	통합캠프 수련활동 내용	1

3.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의 조사는 2013년 7월 3주간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특수학교 8개교와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 270개교에 ○○대학교 업무포탈서비스를 통해 설문지를 발송하였다. 설문조사의 응답과 회수의 수월성을 위해 인터넷 설문응답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였고, 설문조사 대상자 관리프로그램 및 엑셀변환프로그램으로 자료를 수집하였다. 첫 회수 일 주차에 전반적으로 회수율이 저조하여 표집학교에게 설문 참여 협조 요청을 하였고, 2주간의 조사기간 종료 후 학부모들의 회수율이 다소 낮아 1주일간 더 회수하고 종결하였다. 수집된 자료 중 전체 응답이 완료되어 저장된 케이스의 데이터만을 자료 분석에 이용하였다.

4. 자료 처리

본 연구의 통계적인 모든 절차는 통계패키지 프로그램인 SPSS Statistics 19로 자료처리를 하였으며 구체적인 자료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 대상의 학교급별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장애체험과 통합캠프의 참가 대상, 실시 시기, 기간에 대해서는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교차분석은 카이스퀘어 값을 이용하여 집단 간의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셋째, 장애체험 내용 및 통합캠프의 수련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다중응답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응답 교차분석은 각 사항별로 빈도와 케이스 퍼센트를 근거로 해석하였고, 우선순위는 다중응답 빈도분석을 실시하여 제시하였다.

Ⅲ. 연구 결과

1. 장애체험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요구

1) 장애체험 참가 대상

일반학교 학생들이 참여하는 장애체험 프로그램에 학교급별로 우선 참가해야 할 대상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장애체험에 우선적으로 참가해야 할 대상으로 적합한 학년군을 묻는 질문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응답은 <표 4>와 같다. 초등학교 장애체험에 우선적으로

304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6권 2호)

참가해야 할 대상으로 적합한 학년군에 대해 교사들과 부모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6) = 2.152, p > .05$). 네 집단 모두 공통되게 ‘초등학교 5~6학년’, ‘초등학교 3~4학년’, ‘초등학교 1~2학년’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 초등학교 장애체험에 우선적으로 참가해야 할 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임을 알 수 있다.

<표 4> 장애체험 초등학교 참가 대상 N(%)

구분	초등학교 1~2학년	초등학교 3~4학년	초등학교 5~6학년	전체
특수교사	90(17.8)	168(33.3)	247(48.9)	505(100)
특수학생 부모	57(18.2)	104(33.1)	153(48.7)	314(100)
통합학급 교사	42(18.1)	82(35.3)	108(46.6)	232(100)
일반학생 부모	27(15.5)	67(38.5)	80(46.0)	174(100)
전체	216(17.6)	421(34.4)	588(48.0)	1225(100)

$$\chi^2 = 2.152, df = 6, p = 0.905$$

중학교 장애체험에 우선적으로 참가해야 할 대상으로 적합한 학년을 묻는 질문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응답은 <표 5>와 같다. 중학교 장애체험에 우선적으로 참가해야 할 대상으로 적합한 학년에 대해 교사들과 부모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6) = 25.077, p < .001$). 세부항목을 살펴보면 특수학생의 부모는 통합학급 교사에 비해 ‘중학교 1학년’(60.2%)의 응답률이 낮은 반면, ‘중학교 3학년’(10.5%)의 응답률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통합학급 교사는 특수학생의 부모에 비해 ‘중학교 1학년’(71.1%)의 응답률이 높은 반면, ‘중학교 3학년’(2.6%)의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일반학생의 부모는 세 집단에 비해 ‘중학교 2학년’(35.1%)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할 때, 교사들과 부모들의 전반적인 집단 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집단 모두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 중학교 장애체험에 우선적으로 참가할 대상은 ‘중학교 1학년’임을 알 수 있다.

<표 5> 장애체험 중학교 참가 대상 N(%)

구분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3학년	전체
특수교사	347(68.7)	132(26.1)	26(5.1)	505(100)
특수학생 부모	189(60.2)	92(29.3)	33(10.5)	314(100)
통합학급 교사	165(71.1)	61(26.3)	6(2.6)	232(100)
일반학생 부모	106(60.9)	61(35.1)	7(4.0)	174(100)
전체	807(65.9)	346(28.2)	72(5.9)	1225(100)

$$\chi^2 = 25.077, df = 6, p = 0.000$$

고등학교 장애체험에 우선적으로 참가해야 할 대상으로 적합한 학년을 묻는 질문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응답은 <표 6>과 같다. 고등학교 장애체험에 우선적으로 참가해야 할 대상으로 적합한 학년에 대해 교사들과 부모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6) = 27.612, p < .001$). 즉, 특수교사는 특수학생의 부모에 비해 ‘고등학교 1학년’(83.0%)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특수학생의 부모는 특수교사에 비해 ‘고등학교 1학년’(71.7%)의 응답률이 특히 낮은 반면, ‘고등학교 2학년’(19.7%)과 ‘고등학교 3학년’(8.6%)의 응답률은 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할 때, 교사들과 부모들의 전반적인 집단 간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집단 모두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 고등학교 장애체험에 우선적으로 참가할 대상은 ‘고등학교 1학년’임을 알 수 있다.

<표 6> 장애체험 고등학교 참가 대상 N(%)

구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전체
특수교사	419(83.0)	70(13.9)	16(3.2)	505(100)
특수학생 부모	225(71.7)	62(19.7)	27(8.6)	314(100)
통합학급 교사	194(83.6)	32(13.8)	6(2.6)	232(100)
일반학생 부모	137(78.7)	33(19.0)	4(2.3)	174(100)
전체	975(79.6)	197(16.1)	53(4.3)	1225(100)

$$\chi^2 = 27.612, df = 6, p = 0.000$$

2) 장애체험 실시 시기

장애체험을 실시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응답은 <표 7>과 같다. 장애체험을 실시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대해 교사들과 부모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9) = 21.129, p < .05$). 즉, 특수교사는 일반학생의 부모에 비해 ‘학기 중’(51.5%)의 응답률이 높은 반면, ‘겨울방학’(3.2%)의 응답률은 세 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일반학생의 부모는 특수교사에 비해 ‘학기 중’(34.5%)의 응답률이 특히 낮은 반면, ‘여름방학’(35.1%)의 응답률은 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수교사, 특수학생의 부모, 통합학급 교사 세 집단 모두 ‘학기 중’, ‘여름방학’ 순으로 적절하다는 응답이었고, 일반학생의 부모는 응답률의 차이가 다소 있으나 ‘여름방학’(35.1%), ‘학기 중’(34.5%) 순으로 적절하다는 응답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할 때,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장애체험의 실시 시기는 ‘학기 중’과 ‘여름방학’임을 알 수 있다.

구분	학기 중	학기 중 주말	여름방학	겨울방학	전체
특수교사	260(51.5)	96(19.0)	133(26.3)	16(3.2)	505(100)
특수학생 부모	150(47.8)	52(16.6)	92(29.3)	20(6.4)	314(100)
통합학급 교사	109(47.0)	49(21.1)	61(26.3)	13(5.6)	232(100)
일반학생 부모	60(34.5)	41(23.6)	61(35.1)	12(6.9)	174(100)
전체	579(47.3)	238(19.4)	347(28.3)	61(5.0)	1225(100)

$$\chi^2 = 21.129, df = 9, p = 0.012$$

3) 장애체험 실시 기간

장애체험 실시 기간으로 가장 적합한 유형을 묻는 질문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응답은 <표 8>과 같다. 장애체험 실시 기간으로 가장 적합한 유형에 대해 교사들과 부모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9) = 28.906, p < .01$). 즉, 특수학생의 부모는 세 집단에 비해 ‘1박 2일 숙박형’(42.4%)과 ‘2박 3일 숙박형’(9.2%)의 응답률은 특히 높은 반면, ‘반일(3시간) 체험형’(6.7%)과 ‘일일 체험형’(41.7%)의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통합학급 교사는 특수학생의 부모에 비해 ‘반일(3시간) 체험형’(14.7%)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특수교사, 통합학급 교사, 일반학생의 부모 세 집단 모두 ‘일일 체험형’과 ‘1박 2일 숙박형’ 순으로 적절

하다고 응답하였고, 특수학생의 부모는 응답률의 차이가 다소 있으나 '1박 2일 숙박형'(42.4%)와 '일일 체험형'(41.7%) 순으로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할 때,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장애체험의 실시 기간은 '일일 체험형'과 '1박 2일 숙박형'임을 알 수 있다.

<표 8> 장애체험 실시 기간 N(%)

구분	반일(3시간) 체험형	일일 체험형	1박 2일 숙박형	2박 3일 숙박형	전체
특수교사	60(11.9)	243(48.1)	178(35.2)	24(4.8)	505(100)
특수학생 부모	21(6.7)	131(41.7)	133(42.4)	29(9.2)	314(100)
통합학급 교사	34(14.7)	116(50.0)	75(32.3)	7(3.0)	232(100)
일반학생 부모	17(9.8)	93(53.4)	55(31.6)	9(5.2)	174(100)
전체	132(10.8)	583(47.6)	441(36.0)	69(5.6)	1225(100)

$$\chi^2 = 28.906, df = 9, p = 0.001$$

4) 장애체험활동 내용

일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장애체험 프로그램에 적합한 장애체험활동 내용을 학교급(초·중·고)별 교사와 부모의 요구를 조사하였다. 장애체험 프로그램으로 적합한 장애체험활동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응답은 <표 9>와 같다.

초등학교 교사들과 부모들이 요구하는 장애체험 프로그램으로 적합한 내용에 대해 특수교사는 '편의시설 장애체험'(57.9%), '지체장애체험'(55.9%), '장애인스포츠 체험'(50.4%), '지적장애체험'(41.7%) 순으로 나타났고, 특수학생의 부모는 '지체장애체험'(63.2%), '편의시설 장애체험'(48.5%), '지적장애체험'(45.4%), '청각·언어 장애체험'(45.4%) 순으로 나타났다. 통합학급 교사는 '지체장애체험'(62.7%), '시각 장애체험'(61.4%), '청각·언어장애체험'(48.4%), '편의시설 장애체험'(41.8%) 순으로 나타났고, 일반학생의 부모는 '지체장애체험'(65.5%), '시각장애체험'(53.4%), '편의시설 장애체험'(52.6%), '청각·언어장애체험'(42.2%)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초등학교 교사들과 부모들은 장애체험 프로그램에 적합한 내용을 '지체장애체험'(60.8%), '편의시설 장애체험'(51.2%), '시각장애체험'(46.2%), '청각·언어 장애체험'(41.7%) 순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학교 교사들과 부모들이 인식하는 장애체험 프로그램으로 적합한 내용에 대해 특수교사는 ‘편의시설 장애체험’(54.7%), ‘지체장애체험’(54.0%), ‘지적장애체험’(51.1%), ‘장애인스포츠체험’(42.3%) 순으로 나타났고, 특수학생의 부모는 ‘지체장애체험’(59.3%), ‘지적장애체험’(49.4%), ‘시각장애체험’(42.0%), ‘편의시설 장애체험’(42.0%) 순으로 나타났다. 통합학급 교사는 ‘지체장애체험’(75.0%), ‘시각장애체험’(73.2%), ‘청각·언어장애체험’(57.1%), ‘지적장애체험’(37.5%) 순으로 나타났고, 일반학생의 부모는 ‘지체장애체험’(65.1%), ‘시각장애체험’(46.5%), ‘지적장애체험’(41.9%), ‘편의시설 장애체험’(41.9%)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중학교 교사들과 부모들은 장애체험 프로그램에 적합한 내용을 ‘지체장애체험’(60.6%), ‘지적장애체험’(47.0%), ‘시각장애체험’(44.5%), ‘편의시설 장애체험’(43.5%) 순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교사들과 부모들이 요구하는 장애체험 프로그램으로 적합한 내용에 대해 특수교사는 ‘편의시설 장애체험’(57.9%), ‘지적장애체험’(51.8%), ‘장애인스포츠체험’(47.4%), ‘지체장애체험’(44.7%) 순으로 나타났고, 특수학생의 부모는 ‘지적장애체험’(54.3%), ‘지체장애체험’(52.9%)과 ‘편의시설 장애체험’(52.9%), ‘시각장애체험’(42.9%) 순으로 나타났다. 통합학급 교사는 ‘지체장애체험’(73.9%), ‘시각장애체험’(52.2%), ‘지적장애체험’(47.8%), ‘편의시설 장애체험’(39.1%) 순으로 나타났고, 일반학생의 부모는 ‘시각장애체험’(66.7%), ‘지체장애체험’(53.3%), ‘청각·언어장애체험’(46.7%), ‘편의시설 장애체험’(40.0%)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고등학교 교사들과 부모들은 장애체험 프로그램에 적합한 내용을 ‘편의시설 장애체험’(53.2%), ‘지체장애체험’(50.9%), ‘지적장애체험’(50.5%), ‘시각장애체험’(40.5%) 순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지체장애 체험	지적장애 체험	시각장애 체험	편의시설 장애체험	청각·언어 장애체험	장애인 스포츠 체험	직업재활 프로그램 체험	N(%)
초 등 학 교	특수교사	142(55.9)	106(41.7)	96(37.8)	147(57.9)	89(35.0)	128(50.4)	54(21.3)	
	특수부모	103(63.2)	74(45.4)	65(39.9)	79(48.5)	74(45.4)	45(27.6)	49(30.1)	
	통합교사	96(62.7)	51(33.3)	94(61.4)	64(41.8)	74(48.4)	60(39.2)	20(13.1)	
	일반부모	76(65.5)	36(31.0)	62(53.4)	61(52.6)	49(42.2)	38(32.8)	26(22.4)	
	계	417(60.8)	267(38.9)	317(46.2)	351(51.2)	286(41.7)	271(39.5)	149(21.7)	

<표 9> 장애체험활동 내용(계속) N(%)

구분	지체장애 체험	지적장애 체험	시각장애 체험	편의시설 장애체험	청각·언어 장애체험	장애인 스포츠 체험	직업재활 프로그램 체험
중 학 교	특수교사	74(54.0)	70(51.1)	46(33.6)	75(54.7)	47(34.3)	41(29.9)
	특수부모	48(59.3)	40(49.4)	34(42.0)	34(42.0)	28(34.6)	27(33.3)
	통합교사	42(75.0)	21(37.5)	41(73.2)	11(19.6)	32(57.1)	9(16.1)
	일반부모	28(65.1)	18(41.9)	20(46.5)	18(41.9)	15(34.9)	14(32.6)
	계	192(60.6)	149(47.0)	141(44.5)	138(43.5)	122(38.5)	116(36.6)
고 등 학 교	특수교사	51(44.7)	59(51.8)	38(33.3)	66(57.9)	30(26.3)	44(38.6)
	특수부모	37(52.9)	38(54.3)	30(42.9)	37(52.9)	29(41.4)	23(32.9)
	통합교사	17(73.9)	11(47.8)	12(52.2)	9(39.1)	9(39.1)	6(26.1)
	일반부모	8(53.3)	4(26.7)	10(66.7)	6(40.0)	7(46.7)	4(26.7)
	계	113(50.9)	112(50.5)	90(40.5)	118(53.2)	75(33.8)	82(36.9)
전 체	특수교사	267(52.9)	235(46.5)	180(35.6)	288(57.0)	166(32.9)	139(27.5)
	특수부모	188(59.9)	152(48.4)	129(41.1)	150(47.8)	131(41.7)	99(31.5)
	통합교사	155(66.8)	83(35.8)	147(63.4)	84(36.2)	115(49.6)	34(14.7)
	일반부모	112(64.4)	58(33.3)	92(52.9)	85(48.9)	71(40.8)	46(26.4)
	계	722(58.9)	528(43.1)	548(44.7)	607(49.6)	483(39.4)	469(38.3)

※ 다중응답

전체적으로 장애체험 프로그램에 적합한 장애체험활동 내용을 특수교사는 ‘편의시설 장애체험’(57.0%), ‘지체장애체험’(52.9%), ‘장애인 스포츠체험’(47.5%) 영역 순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특수학생의 부모는 ‘지체장애체험’(59.9%), ‘지적장애체험’(48.4%), ‘편의시설 장애체험’(47.8%) 영역 순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다. 통합학급 교사와 일반학생의 부모는 동일하게 ‘지체장애체험’, ‘시각장애체험’ 영역 순으로 가장 많이 선택하였고, 그 다음 순으로 통합학급 교사는 ‘청각·언어장애체험’(49.6%) 영역을 일반학생의 부모는 ‘편의시설 장애체험’(48.9%) 영역을 많이 선택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보면, 전체적으로 장애체험 프로그램 내용을 ‘지체장애체험’(58.9%), ‘편의시설 장애체험’(49.6%), ‘시각장애체험’(44.7%), ‘지적장애체험’(43.1%) 영역 순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10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6권 2호)

장애체험 프로그램에 적합한 장애체험활동 내용을 우선순위로 나타내어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교사들과 부모들은 ‘지체장애체험’(61.5%), ‘편의시설 장애체험’(48.2%), ‘시각장애체험’(45.3%), ‘지적장애체험’(43.0%) 영역 순으로 가장 많은 응답률을 보였다. 특히, ‘지체장애체험’ 영역은 응답자 중 가장 많은 176명(36.1%)에게서 1순위로 응답되어 장애체험활동에 포함되어야 할 중요한 내용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응답전체	1순위	2순위	3순위
지체장애체험	300(61.5)	176(36.1)	80(16.4)	44(9.0)
지적장애체험	210(43.0)	78(16.0)	85(17.4)	47(9.6)
시각장애체험	221(45.3)	51(10.5)	81(16.6)	89(18.2)
편의시설 장애체험	235(48.2)	86(17.6)	81(16.6)	68(13.9)
청각·언어장애체험	202(41.4)	28(5.79)	76(15.6)	98(20.1)
장애인 스포츠체험	151(30.9)	31(6.4)	51(10.5)	69(14.1)
직업재활프로그램체험	145(29.7)	38(7.8)	34(7.0)	73(15.0)
계	-	488(100)	488(100)	488(100)

※ 다중응답

2. 통합캠프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요구

1) 통합캠프 참가 대상

일반학교 학생과 장애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캠프 프로그램에 우선 참가해야 할 대상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요구를 조사하였다. 통합캠프에 우선적으로 참가해야 할 대상을 묻는 질문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응답은 <표 11>과 같고 교사들과 부모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9) = 24.284, p < .01$). 즉, 특수학생의 부모는 세 집단에 비해 ‘초등학교 고학년’(43.0%)의 응답률이 낮은 반면, ‘고등학교’(10.2%) 응답률이 일반학생의 부모에 비해 특히 높게 나타났다. 통합학급 교사는 세 집단에 비해 ‘중학교’(31.9%)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일반학생의 부모는 특수학생의 부모에 비해 ‘고등학교’(2.9%)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할 때, 교사들과 부모들의 전반적으로 집단 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집단 모두 ‘초등학교 고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교’ 순으로 응답률이 높게 나타나, 통합캠프에 우선적으로 참가할 대상은 ‘초등학교 고학년’임을 알 수 있다.

<표 11> 통합캠프 참가 대상 N(%)

구분	초등학교 저학년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전체
특수교사	141(27.9)	241(47.7)	93(18.4)	30(5.9)	505(100)
특수학생 부모	86(27.4)	135(43.0)	61(19.4)	32(10.2)	314(100)
통합학급 교사	74(31.9)	123(53.0)	25(10.8)	10(4.3)	232(100)
일반학생 부모	51(29.3)	91(52.3)	27(15.5)	5(2.9)	174(100)
전체	352(28.7)	590(48.2)	206(16.8)	77(6.3)	1225(100)

$\chi^2 = 24.284, df = 9, p = 0.004$

2) 통합캠프 실시 시기

통합캠프를 실시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를 묻는 질문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응답은 <표 12>와 같다. 통합캠프를 실시하기에 가장 적절한 시기에 대해 교사들과 부모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9) = 22.555, p < .01$). 즉, 특수교사는 일반학생의 부모에 비해 ‘학기 중’(51.1%)의 응답률이 특히 높게 나타났다. 일반학생의 부모는 특수교사에 비해 ‘학기 중’(32.8%)의 응답률이 특히 낮게 나타난 반면, ‘여름방학’(38.5%)의 응답률이 세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특수교사, 특수학생의 부모, 통합학급 교사 세 집단 모두 ‘학기 중’, ‘여름방학’ 순으로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일반학생의 부모는 응답률의 차이가 다소 있으나 ‘여름방학’(38.5%), ‘학기 중’(32.8%) 순으로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할 때, 장애체험 캠프의 실시 시기는 ‘학기 중’과 ‘여름방학’이 가장 적절함을 알 수 있다.

<표 12> 통합캠프 실시 시기 N(%)

구분	학기 중	학기 중 주말	여름방학	겨울방학	전체
특수교사	258(51.1)	80(15.8)	145(28.7)	22(4.4)	505(100)
특수학생 부모	143(45.5)	55(17.5)	98(31.2)	18(5.7)	314(100)
통합학급 교사	91(39.2)	47(20.3)	78(33.6)	16(6.9)	232(100)
일반학생 부모	57(32.8)	36(20.7)	67(38.5)	14(8.0)	174(100)
전체	549(44.8)	218(17.8)	388(31.7)	70(5.7)	1225(100)

$\chi^2 = 22.555, df = 9, p = 0.007$

3) 통합캠프 실시 기간

통합캠프의 실시 기간으로 가장 적합한 유형을 묻는 질문에 대한 교사와 부모의 응답은 <표 13>과 같다. 통합캠프 실시 기간으로 가장 적합한 유형에 대해 교사들과 부모들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hi^2(9) = 33.411, p < .001$). 즉, 특수교사는 통합학급 교사에 비해 ‘반일(3시간) 체험형’(4.6%)의 응답률이 낮게 나타났다. 특수학생의 부모는 세 집단에 비해 ‘일일 체험형’(38.9%)의 응답률이 특히 낮게 나타난 반면, ‘2박 3일 숙박형’(11.5%)의 응답률은 통합학급 교사에 비해 특히 높게 나타났다. 통합학급 교사는 특수교사에 비해 ‘반일(3시간) 체험형’(9.9%)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난 반면, ‘2박 3일 숙박형’(3.0%)의 응답률은 특수학생의 부모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특수교사와 특수학생의 부모 두 집단은 ‘1박 2일 숙박형’, ‘일일 체험형’ 순으로 적절하다고 응답하였고, 통합학급 교사와 일반학생의 부모 두 집단은 ‘일일 체험형’, ‘1박 2일 숙박형’ 순으로 적합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할 때, 장애체험캠프의 실시 기간은 ‘일일 체험형’과 ‘1박 2일 숙박형’이 가장 적합함을 알 수 있다.

<표 13> 통합캠프 실시 기간 N(%)

구분	반일(3시간) 체험형	일일 체험형	1박 2일 숙박형	2박 3일 숙박형	전체
특수교사	23(4.6)	240(47.5)	215(42.6)	27(5.3)	505(100)
특수학생 부모	19(6.1)	122(38.9)	137(43.6)	36(11.5)	314(100)
통합학급 교사	23(9.9)	119(51.3)	83(35.8)	7(3.0)	232(100)
일반학생 부모	14(8.0)	85(48.9)	63(36.2)	12(6.9)	174(100)
전체	79(6.4)	566(46.2)	498(40.7)	82(6.7)	1225(100)

$$\chi^2 = 33.411, df = 9, p = 0.000$$

4) 통합캠프 프로그램 내용

일반학교 학생과 장애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캠프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학교급(초·중·고)별 교사와 부모의 요구를 조사하였다. 통합캠프 프로그램의 내용을 묻는 질문에 대해 교사와 부모의 응답은 <표 14>와 같다.

초등학교 교사들과 부모들이 요구하는 통합캠프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특수교사는 ‘자기(인성)계발활동’(55.5%), ‘모험개척활동’(53.1%), ‘문화예술활동’(48.8%), ‘환경보존활동’(37.8%) 순으로 나타났고, 특수학생의 부모는 ‘모험개척활동’(53.4%), ‘자기(인성)계발활동’(51.5%), ‘환경보존활동’(36.2%), ‘봉사활동’(35.6%) 순으로 나타났다. 통합학급 교사는 ‘자기(인성)계발활동’(70.6%), ‘문화예술활동’(45.8%), ‘모험개척활동’(44.4%), ‘환경보존활동’(32.0%) 순으로 나타났고, 일반학생의 부모는 ‘자기(인성)계발활동’(69.8%), ‘건강·보건활동’(43.1%), ‘직업체험교육’(36.2%), ‘문화예술활동’(35.3%)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초등학교 교사들과 부모들은 통합캠프 프로그램의 내용을 ‘자기(인성)계발활동’(60.3%), ‘모험개척활동’(47.5%), ‘문화예술활동’(41.3%), ‘환경보존활동’(34.5%) 순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학교 교사들과 부모들이 요구하는 통합캠프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특수교사는 ‘모험개척활동’(52.6%), ‘자기(인성)계발활동’(50.4%), ‘문화예술활동’(41.6%), ‘환경보존활동’(37.2%) 순으로 나타났고, 특수학생의 부모는 ‘자기(인성)계발활동’(53.1%), ‘모험개척활동’(49.4%), ‘봉사활동’(33.3%), ‘환경보존활동’(32.1%) 순으로 나타났다. 통합학급 교사는 ‘자기(인성)계발활동’(55.4%), ‘직업체험교육’(48.2%), ‘건강·보건활동’(35.7%)과 ‘모험개척활동’(35.7%), 그리고 ‘문화예술활동’(35.7%) 순으로 나타났고, 일반학생의 부모는 ‘자기(인성)계발활동’(74.4%), ‘문화예술활동’(41.9%)과 ‘직업체험교육’(41.9%), ‘건강·보건활동’(39.5%)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중학교 교사들과 부모들은 통합캠프 프로그램의 내용을 ‘자기(인성)계발활동’(55.2%), ‘모험개척활동’(44.8%), ‘문화예술활동’(37.2%), ‘직업체험교육’(33.1%) 순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교사들과 부모들이 요구하는 통합캠프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특수교사는 ‘모험개척활동’(57.0%), ‘자기(인성)계발활동’(52.6%), ‘문화예술활동’(39.5%), ‘교류활동’(36.8%) 순으로 나타났고, 특수학생의 부모는 ‘모험개척활동’(48.6%), ‘자기(인성)계발활동’(42.9%), ‘문화예술활동’(40.0%), ‘환경보존활동’(34.3%) 순으로 나타났다. 통합학급 교사는 ‘자기(인성)계발활동’(65.2%), ‘문화예술활동’(52.2%), ‘직업체험교육’(43.5%), ‘봉사활동’(39.1%) 순으로 나타났고, 일반학생의 부모는 ‘자기(인성)계발활동’(66.7%), ‘건강·보건활동’(53.3%), ‘문화예술활동’(40.0%)과 ‘직업체험교육’(33.3%)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고등학교 교사들과 부모들은 통합캠프 프로그램의 내용을 ‘자기(인성)계발활동’(51.8%), ‘모험개척활동’(47.7%), ‘문화예술활동’(41.0%), ‘봉사활동’(32.4%) 순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14 특수교육 저널: 이론과 실천(제16권 2호)

<표 14> 통합캠프 수련활동 내용 N(%)

구분	건강 · 보건 활동	과학 정보 활동	교류 활동	모험 개척 활동	문화 예술 활동	봉사 활동	자기 (인성) 계발 활동	직업 체험 교육	환경 보존 활동	
초 등 학 교	특수교사	40 (15.7)	24 (9.4)	78 (30.7)	135 (53.1)	124 (48.8)	61 (24.0)	141 (55.5)	63 (24.8)	96 (37.8)
	특수부모	53 (32.5)	26 (16.0)	44 (27.0)	87 (53.4)	48 (29.4)	58 (35.6)	84 (51.5)	30 (18.4)	59 (36.2)
	통합교사	43 (28.1)	9 (5.9)	34 (22.2)	68 (44.4)	70 (45.8)	40 (26.1)	108 (70.6)	38 (24.8)	49 (32.0)
	일반부모	50 (43.1)	11 (9.5)	22 (19.0)	36 (31.0)	41 (35.3)	32 (27.6)	81 (69.8)	42 (36.2)	33 (28.4)
	계	186 (27.1)	70 (10.2)	178 (25.9)	326 (47.5)	283 (41.3)	191 (27.8)	414 (60.3)	173 (25.2)	237 (34.5)
중 학 교	특수교사	29 (21.2)	19 (13.9)	43 (31.4)	72 (52.6)	57 (41.6)	31 (22.6)	69 (50.4)	40 (29.2)	51 (37.2)
	특수부모	23 (28.4)	17 (21.0)	24 (29.6)	40 (49.4)	23 (28.4)	27 (33.3)	43 (53.1)	20 (24.7)	26 (32.1)
	통합교사	20 (35.7)	1 (1.8)	17 (30.4)	20 (35.7)	20 (35.7)	18 (32.1)	31 (55.4)	27 (48.2)	14 (25.0)
	일반부모	17 (39.5)	3 (7.0)	8 (18.6)	10 (23.3)	18 (41.9)	14 (32.6)	32 (74.4)	18 (41.9)	9 (20.9)
	계	89 (28.1)	40 (12.6)	92 (29.0)	142 (44.8)	118 (37.2)	90 (28.4)	175 (55.2)	105 (33.1)	100 (31.5)
고 등 학 교	특수교사	16 (14.0)	13 (11.4)	42 (36.8)	65 (57.0)	45 (39.5)	39 (34.2)	60 (52.6)	26 (22.8)	36 (31.6)
	특수부모	21 (30.0)	17 (24.3)	16 (22.9)	34 (48.6)	28 (40.0)	22 (31.4)	30 (42.9)	18 (25.7)	24 (34.3)
	통합교사	8 (34.8)	3 (13.0)	4 (17.4)	4 (17.4)	12 (52.2)	9 (39.1)	15 (65.2)	10 (43.5)	4 (17.4)
	일반부모	8 (53.3)	3 (20.0)	4 (26.7)	3 (20.0)	6 (40.0)	2 (13.3)	10 (66.7)	5 (33.3)	4 (26.7)
	계	53 (23.9)	36 (16.2)	66 (29.7)	106 (47.7)	91 (41.0)	72 (32.4)	115 (51.8)	59 (26.6)	68 (30.6)
전 체	특수교사	85 (16.8)	56 (11.1)	163 (32.3)	272 (53.9)	226 (44.8)	131 (25.9)	270 (53.5)	129 (25.5)	183 (36.2)
	특수부모	97 (30.9)	60 (19.1)	84 (26.8)	161 (51.3)	99 (31.5)	107 (34.1)	157 (50.0)	68 (21.7)	109 (34.7)
	통합교사	71 (30.6)	13 (5.6)	55 (23.7)	92 (39.7)	102 (44.0)	67 (28.9)	154 (66.4)	75 (32.3)	67 (28.9)
	일반부모	75 (43.1)	17 (9.8)	34 (19.5)	49 (28.2)	65 (37.4)	48 (27.6)	123 (70.7)	65 (37.4)	46 (26.4)
	계	328 (26.8)	146 (11.9)	336 (27.4)	574 (46.9)	492 (40.2)	353 (28.8)	704 (57.5)	337 (27.5)	405 (33.1)

※ 다중응답

전체적으로 일반학교 학생과 장애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캠프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특수교사와 특수학생의 부모는 두 집단 모두 동일하게 ‘모험개척활동’, ‘자기(인성)계발활동’ 영역 순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고, 그 다음 순으로 특수교사는 ‘문화예술활동’(44.8%), ‘환경보존활동’(36.2%) 영역을 특수학생의 부모는 ‘환경보존활동’(34.7%), ‘봉사활동’(34.1%) 영역을 많이 응답하였다. 통합학급 교사와 일반학생의 부모는 두 집단 모두 동일하게 ‘자기(인성)계발활동’을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그 다음 순으로 통합교사는 ‘문화예술활동’(44.0%)과 ‘모험개척활동’(39.7%), ‘직업체험교육’(32.3%) 영역 순으로 많이 응답하였고, 일반학생의 부모는 ‘건강·보건활동’(43.1%)과 ‘문화예술활동’(37.4%), ‘직업체험교육’(37.4%) 영역 순으로 많이 응답하였다. 전체적으로 통합캠프 프로그램의 내용을 ‘자기(인성)계발활동’(57.5%), ‘모험개척활동’(46.9%), ‘문화예술활동’(40.2%), ‘환경보존활동’(33.1%) 영역 순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학교 학생과 장애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캠프 프로그램의 내용을 우선순위로 나타내어 살펴보면 <표 15>과 같다. 교사들과 부모들은 ‘자기(인성)계발활동’(57.4%), ‘모험개척활동’(43.0%), ‘건강·보건활동’(35.2%), ‘문화예술활동’(33.6%) 영역 순으로 가장 많이 응답하였다. 특히 ‘자기(인성)계발활동’ 영역은 응답자 중 가장 많은 163명(33.4%)에게서 1순위로 응답하여 통합캠프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분	응답전체	1순위	2순위	3순위
건강·보건활동	172(35.2)	63(12.9)	51(10.5)	58(11.9)
과학정보활동	77(15.8)	19(3.9)	32(6.6)	26(5.3)
교류활동	118(24.2)	36(7.4)	38(7.8)	44(9.0)
모험개척활동	210(43.0)	68(13.9)	79(16.2)	63(12.9)
문화예술활동	164(33.6)	42(8.6)	66(13.5)	56(11.5)
봉사활동	155(31.8)	43(8.8)	63(12.9)	49(10.0)
자기(인성)계발활동	280(57.4)	163(33.4)	76(15.6)	41(8.4)
직업체험교육	133(27.3)	20(4.1)	42(8.6)	71(14.5)
환경보존활동	155(31.8)	34(7.0)	41(8.4)	80(16.4)
계	-	488(100)	488(100)	488(100)

※ 다중응답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통합교육 환경의 주요 구성원인 교사와 부모를 대상으로 일반학생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체험과 통합캠프 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를 조사하였으며, 프로그램의 참가 대상, 실시 시기, 실시 기간, 활동 내용에 대한 요구를 집단별 및 학교급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여기서는 본 연구의 결과와 연계하여 일반학생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체험과 통합캠프 프로그램 개발의 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

1. 장애체험 프로그램의 요구에 대한 논의

일반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장애체험 프로그램의 참가 대상, 실시 시기, 실시 기간,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장애체험 프로그램에 학교급별로 우선 참가해야 할 대상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장애체험 프로그램에 우선 참가해야 할 대상으로 초등학교는 집단별로 유의한 차이가 없이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5~6학년'(48.0%), '초등학교 3~4학년'(34.4%), '초등학교 1~2학년'(17.6%) 순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통합교육 환경에서 일반학생의 장애학생들에 대한 태도 연구에서 가능한 한 어린 시절에 일반학생들이 장애학생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나 수용적인 자세를 개발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Favazza, Phillipson & Kummar, 2000)는 결과와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장애체험 프로그램이 체험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초등학교 수준의 경우 저학년보다는 고학년을 우선 참가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로 볼 때 초등학교의 경우 학년군별 장애체험을 통한 장애인식 개선의 효과성 비교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중학교와 고등학교 학생에 대해서는 '1학년'을 공통되게 우선 참가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장애체험 프로그램의 실시 시기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장애체험 프로그램의 실시 시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학기 중'(47.3%), '여름방학'(28.3%) 순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고 일반학생 부모와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특히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인 '학기 중'의 경우 특수교사는 51.5%인 반면 일반학생의 부모는 34.5%의 다소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또한 일반학생의 부모는 '여름방학'(35.1%)과 '학기 중'(34.5%)이 근사한 응답률을 보이고 있어 '여름방학'과 '학기 중'이 적절한 시기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장애체험 프로그램의 실시 기간에 대해 알 수 있었다. 장애체험 프로그램의 실시 기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일일 체험형’(47.6%), ‘1박 2일 숙박형’(36.0%) 순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고 특수학생 부모와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일일 체험형’을 세 집단 모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나 특수학생의 부모는 ‘1박 2일 숙박형’(42.4%)을 ‘일일 체험형’(41.7%)보다 다소 높게 응답하였다. 이는 일반학생이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서 장애체험은 장기간으로 실시되어야 한다는 요구로 보여진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장애체험 프로그램에 적합한 학교급별 장애체험 내용을 알 수 있었다. 장애체험활동의 내용을 학교급별로 응답비율의 우선순위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 공통되게 ‘지체장애체험’(58.9%), ‘편의시설 장애체험’(49.6%), ‘시각장애체험’(44.7%), ‘지적장애체험’(43.1%), ‘청각·언어장애 체험’(39.4%) 순으로 모의 장애체험활동 중심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특이한 점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특수교사는 각각 ‘장애인 스포츠체험’(50.4%, 42.3%)에 매우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고등학교 특수교사는 ‘장애인 스포츠체험’(47.4%)과 ‘직업재활프로그램체험’(38.6%)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세 집단에 비해 특수교사는 모의 장애체험과 아울러 학교급별 수준에 따라 장애인의 여가 및 직업과 관련된 체험을 중요한 내용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할 수 있다. 또한 통합교사와 일반부모는 시각장애체험에 대해서 특수교사와 특수부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요구를 하고 있는 반면에, 지적장애체험과 관련해서는 상반된 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일반교사와 부모의 장애 인식과도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일반학급에 통합된 특수교육학생의 50%이상이 지적장애학생이기에 특수교사와 부모들의 현실을 알고 이에 대한 실질적인 요구를 보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모의 장애체험은 사람이 장애 때문에 매우 불편함을 느끼게 한다는 것을 일반학생으로 하여금 체험하게 하고 그것의 불편함을 덜어주도록 도와 줄 필요성을 강조하게 되어 체험의 내용은 오히려 장애를 가진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가 더 크게 부각될 위험성이 있다(김성애, 2014)는 지적도 있다. 모의 장애체험은 일반학생들에게 장애인들의 요구와 경험들을 느끼게 함으로써 장애인들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촉진하는데 효과가 있으며, 이러한 모의 장애체험은 장애인들의 어려움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장애인들이 적응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기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Salend, 2001). 그러므로 장애체험활동 후에 체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으며, 앞으로 장애인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녀야 하는지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져야 하며(이소현, 박은혜, 1998), 그들이 경험한 내용을 글로 써보도록 함으로써 장애체험활동은 일반학생들이 장애인이 경험하는 문제가 무엇인지 이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장애학생에 대한 수용 태도를 향상시키게 된다(Salend, 2001). 본 연구에서는 장애체험활동의 내용적 측면에서 학교급별 수준에 적합한 활동 내용을 제시할 수 있지만 일반학생으로

하여금 장애를 다양성으로 수용한다거나 개성으로 인식 한다는 등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교육 방법적 접근이 필요하므로 장애체험 내용별로 학생수준에 적합한 교육 방법 탐색이 요구된다.

2. 통합캠프 프로그램의 요구에 대한 논의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캠프 프로그램의 참가 대상, 실시 시기, 실시 기간, 활동 내용을 분석한 결과에 따른 논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통합캠프 프로그램에 참가해야 할 대상에 대해 알 수 있었다. 통합캠프 프로그램에 우선적으로 참가해야 할 대상으로 교사들과 부모들 간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집단 모두 '초등학교 고학년', '초등학교 저학년', '중학교', '고등학교' 순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장애체험 프로그램의 우선 참가 대상과 동일하게 초등학교는 '저학년' 보다 '고학년'이 적합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중학교', '고등학교' 보다는 초등학교의 응답률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통합캠프 프로그램에 우선 참가해야 할 대상을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통합캠프 프로그램의 실시 시기에 대해 알 수 있었다. 통합캠프의 실시 시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학기 중'(44.8%), '여름방학'(38.5%), '학기 중 주말'(17.8%) 순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고 일반학생의 부모와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학기 중'의 경우 특수교사는 51.1%인 반면 일반학생의 부모는 32.8%의 다소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이는 장애체험 프로그램의 실시 시기와 동일한 원인으로 특수교사의 경우 학생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학기 중'이 적절하다는 반응이라면 일반학생의 부모는 정규교육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의한 반응으로 보여진다. 일반학생의 부모는 '학기 중'(32.8%) 보다는 '여름 방학'(38.5%)이 더 적절하다는 반응이었다.

셋째,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통합캠프 프로그램의 실시 기간에 대해 알 수 있었다. 통합캠프 프로그램의 실시 기간에 대해 전체적으로 '일일 체험형'(46.2%), '1박 2일 숙박형'(40.7%) 순으로 높은 응답을 보였고 특수학생 부모와 세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특히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인 '일일 체험형'의 경우 통합학급 교사는 51.3%인 반면 특수학생의 부모는 38.9%로 가장 낮은 응답률을 보였다. 하지만 '1박 2일 숙박형'에 대해서는 특수학생의 부모가 43.6%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여 장애체험 프로그램과 동일하게 단기간의 활동 보다 장기간의 활동을 통해 장애인식 개선이 이루어지길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특수학교 교사를 대상으로 실시 한 장애학생의 통합 수련활동에 참여하기에 가장

바람직한 시간을 '1박 2일'(80.6%) 정도가 적절하다(최성규, 2011)는 조사결과와 다소 유사하지만 장애학생이 일반 수련활동에 포함되어 실시되는 일반학생 중심의 통합 수련활동과 장애학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통합캠프와는 차이가 있다.

넷째, 본 연구의 결과를 살펴보면 학교급별 통합캠프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해 알 수 있었다. 통합캠프의 활동 내용을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초·중·고등학교 모두 '자기(인성)계발활동'에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다음으로 '모험개척활동', '문화예술활동'에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 네 번째 활동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급별로 차이가 있었는데 초등학교는 '환경보존활동'을, 중학교는 '직업체험교육'을, 고등학교는 '봉사활동'을 높게 응답하였다. 특히 초·중·고등학교 일반학생의 부모는 '건강·보건활동'에 대해서도 높은 응답률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2009 개정 교육과정 도입으로 모든 학생을 위한 창의·인성교육체제로 전환되어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을 망라하는 체계적이고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보급이 필요하다(교육과학기술부, 2009)는 지적과 같이 교사들과 부모들 또한 창의·인성 함양 프로그램과 관련된 자기(인성)계발활동을 매우 중요한 활동 내용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반학생과 장애학생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캠프와 같은 청소년수련활동은 청소년의 균형적 성장을 위하여 청소년의 능동적 참여에 기초를 두고 생활권 또는 자연권에서 심신을 단련하고 자질을 배양하며, 다양한 취미를 개발하고, 정서를 함양할 뿐만 아니라 사회봉사활동을 통해 배움을 실천하는 조직적인 체험활동을 말하므로(한국청소년수련활동진흥원, 2014), 통합캠프는 자기(인성)계발활동을 중심으로 학교급별 학생의 관심과 수준에 따른 다양한 통합캠프 활동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본 연구에서는 일반학생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체험과 통합캠프 프로그램에 대해 교사와 부모의 요구를 알아보았다. 이러한 결과와 논의를 근거로 할 때 장애체험과 통합캠프 프로그램의 참가 대상을 초등학교는 고학년을 중·고등학교는 저학년을 우선 선정하고, 학기 중이나 여름방학 중에 일일 체험형 또는 1박 2일 숙박형으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장애체험의 활동 내용은 모의 장애체험을 중심으로 실시하면서 체험내용별 교육방법에 대한 정밀한 탐구가 필요하며, 통합캠프는 자기(인성)계발활동을 중심으로 학교급별로 다양하게 구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와 같은 사실을 고려할 때 장애체험과 통합캠프 프로그램은 학교급별 수준에 따라 참가 대상, 실시 시기, 실시 기간, 활동 내용을 구조적이며 체계적으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구성요소와 관련하여 심층면담 또는 포커스그룹인터뷰를 통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 결과는 일반학생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한 장애체험과 통합캠프 프로그램의 개발 방향 정립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이로 인해 통합교육 환경 구성원의 요구가 반영된 프로그램이 학교 현장과 지역사회기관에서 개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 경상남도교육청 (2012). **경남특수교육원(가칭) 설립 타당성 연구 보고서**. 경상남도교육청.
- 경상남도교육청 (2013). **2013 경상남도 특수교육 현황**. 경상남도교육청.
- 경상남도교육청 (2013). **경남특수교육원 운영프로그램 연구 보고서**. 경상남도교육청
- 교육과학기술부 (2009). **창의와 배려의 조화를 통한 인재 육성 : 창의·인성교육 기본 방안**. 서울: 교육과학기술부.
- 교육부 (2014). **2014 특수교육통계**. 서울: 교육부.
- 교육부 (2014). **2014년도 특수교육 운영계획**. 서울: 교육부.
- 국립재활원 (2012). **장애체험 가이드북**. 국립재활원.
- 김성애 (2014). 우리나라 장애이해교육의 의미고찰. **유아특수교육연구**, 14(2), 53-73.
- 김진호 (2013). 『4-H청소년 서울현장체험학습』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청소년인증수련활동 효과성 측정도구를 중심으로. **농촌지도와 개발**, 20(3), 729-753.
- 박영균 (2005). 장애학생 체험활동 실태에 관한 연구. **특수아동교육연구**, 7(1), 311-336.
- 서동명 (1999). 발달장애청소년과의 통합활동경험을 통한 일반청소년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변화.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송정희 (2010). 통합캠프에서 참가자와 장애 아동과의 긍정적 상호작용 변화에 대한 질적 연구. **특수교육저널: 이론과 실천**, 11(4), 565-590.
- 신순자, 박정민, 강삼성 (2010). 장애이해교육과 장애체험활동이 초등학생의 장애 인식 및 장애 수용태도에 미치는 효과 차이 분석. **특수교육재활과학연구**, 49(3), 171-197.
- 이소현, 박은혜 (1998). **특수아동교육**. 서울: 학지사.
- 이수연, 박종영, 박정자, 이은숙 (2013). 장애학의 관점에서 본 장애이해교육의 실태분석과 나아갈 방향. **한국청각·언어장애교육연구**, 4(1), 19-35.
- 이시영 (2012). 중고등학교 장애이해교육 관련연구의 동향분석. **우석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중운, 허만세 (2012). 장애체험 프로그램이 일반 청소년의 장애인에 대한 태도 변화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논총**, 31(1), 325-343.
- 정대영 (2011). **특수교육학**. 서울: 창지사.
- 최성규 (2011). 장애청소년을 위한 통합 수련활동 지원에 대한 특수학교 교사의 인식. **지적장애연구**, 13(2), 177-200.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2).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인증신청 매뉴얼**.
-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2014). **청소년수련활동인증제 매뉴얼(인증신청·사후관리)**.
- Au, K. W. & Man, D. E. K. (2006). Attitudes toward people with disabilities: A comparison between health care professionals and students. *International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29(2), 155-160.
- Favazza, P. C., Phillipsen, L., & Kummar, P. (2000). Measuring and promoting acceptance of young children with disabilities. *Exceptional Children*, 66, 491-508.

- Krahe, B. & Altwasser, C. (2006). Changing negative attitudes towards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An Experimental Intervention. *Journal of Community and Applied Social Psychology, 16*, 59-69.
- Salend, S. J. (2001). *Creating inclusive classrooms: Effective and reflective practices*. New Jersey Columbus, Ohio: Merrill Prentice Hall.
- Stuart, H. (2006). Reaching out to high school youth: The effectiveness of a video-based antistigma program.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51*(10), 647-653.

Needs of Teachers and Parents of Disability Experience and Integrated Camp Program to Improve the Disability Awareness of General Students

Jung, Dae Young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Song, Mi Jin

Gyeongsangnamdo Institute for Special Education

LEE, Sang Ro

Changwon Cheongwang Schoo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needs of teachers and parents for disability experience and integrated camp programs geared toward improving the disability awareness of students without any disabilities.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1,640 teachers and parents in special and regular schools who were selected by systematic sampling and random sampling from South Gyeongsang Province. Among the teachers, the teachers who worked in regular schools were in charge of integrated classes. An online survey system was set up, and the answer sheets from 1,225 respondents were analyzed to find out their needs for the objects, time, period and content of disability experience and integrated camp programs. As a result, the largest group responded that the participants in the programs should be in their fifth and sixth grades of elementary school and in their first grade of middle and high schools, and the biggest group considered it advisable for the programs to be conducted during the semester and summer vacation. Concerning the period of the programs, one-day and overnight programs were preferred. As for the content of disability experience activities, all the respondents i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chose a mock disability program. Specifically, the elementary special education teachers placed more importance on experiencing disabled people's sport activities, and the secondary special education teachers gave more weight to vocational rehabilitation programs. Regarding integrated camp, upper elementary school graders were regarded as the best participants, and this camp should be held during the semester and summer vacation. As to the period of the camp, one-day and overnight programs were considered appropriate. In relation to the content of the camp, all the respondents in the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attached the most importance to self(character)-improvement activities. Given the findings of the study, how to prepare and conduct disability awareness and integrated camp programs to change the way students with no disabilities look at disabilities were discussed.

Key Words : disability awareness, disability experience, integrated camp

논문 접수: 2015. 05. 06 심사 시작: 2015. 05. 15 게재 확정: 2015. 06. 13